

2024 새해 이렇게

김성 장흥군수

천관산벨트·생태테마파크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역점



우드랜드에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 건설 민자 유치 나설 것 청년자립학교·귀농 주택·농산어촌 유학 마을 인구 소멸 대응

“문화·예술·관광 부흥 시대를 이끌어 올해를 관광산업 경쟁력의 ‘블루오션’을 찾겠습니다.” 김성 장흥군수는 광주일보와 가진 새해 인터뷰에서 “지난해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 최우수(SA) 평가를 받는 등 총 39개 다양한 분야에서 150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역대 최대 성과를 남긴 자긍심의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김 군수는 임기 3년째를 맞는 올해 “유치해온 대형 사업들을 무던 도끼의 날을 갈아 바늘을 만들겠다는 ‘마부위침’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올해 주요 국정 목표를 ▲문화·예술·관광의 부흥시대의 해 ▲농·수·축·임산업의 6차 산업화로 경쟁력 강화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로 청년 인구 유치 ▲누구 하나 소외 없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정책 ▲군민과 더 가까운 소통으로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등을 내세웠다. 지난해는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원년을 선포한 한해였다면 올해는 “블루오션 관광산업 경쟁력을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천관산 허그벨트(H.U.G) 조성,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장흥만의 독특하고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할 생각이다. 또 “정남진 부근에 있는 통일기원탑과 기원동산을 연내 마무리해 장흥이 명실공히 ‘통일 시작의 땅’임을 널리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연말까지 우드랜드 안에 민자 유치를 통한 대규모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 유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6차 산업화가 급선무”라며 “농어촌 융·복합 첨단단지과 스마트팜 투자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흥 연안이 전국 최초 갯벌 생태 산업 특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할 구상이다. 무산 김, 낚지 등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다. ‘한우 고장’으로 꼽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축사 주변에 나무를 심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축산업 단지로 꾸밀 생각이다. 김 군수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은 오로지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가 시급하다”며 “사활을 걸어 대응기금을 마련해 청년자립학교, 청년 귀농 임대주택, 농산어촌 유학 마을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힐링 문흥 가족 전화 공간 조성, 문흥빛의 거리 조성 등을 통해 인구 활력을 위한 현안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

김 군수는 노약자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당하지 않기 위한 두터운 복지정책에도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65세 이상의 사회참여와 소득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올해 안에 증축할 예정이다. 280여 가구에 이르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착지원과 저소득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견고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도 힘쓴다. 김 군수는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내부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끌어 올리기 위해 실력과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한 공직문화 풍토를 정착하는 데 신경 쓸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앞으로 군민과의 대화, 직능단체 간담회를 보다 활성화해 군민 요구에 신속하게 답하는 적극 행정으로 참여의 장을 늘려나갈 생각”이라며 “올해는 낯은 관행을 과감히 개선 청렴한 공직자상을 심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 고인돌가을꽃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

화순군이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한 제12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축제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지난해 전국에서 개최된 축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의위원 25명이 6개 부문에 걸쳐 선정하는 상이다. 축제 결과와 방문객 만족도, 지역민 지지도, 콘텐츠 차별성, 안전 관리체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화순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공

원에 가을꽃축제를 개최해 관광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의 대표 축제가 축제관광 부문 대상에 선정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 봄과 가을에 개최되는 화순 고인돌축제도 더 발전시켜 관광객 500만 시대를 이끄는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2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은 오는 2월22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강진원(가운데) 강진군수와 직원들이 토종쌀 막걸리 시음회를 열고 맛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강진군 제공)

장성군 600㎡ 규모 ‘청년센터’ 10월 착공

행안부 공모 선정 25억원 확보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오는 2025년까지 ‘청년센터’가 생긴다. 장성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청년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모여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점시설이다. 자기계발과 여가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장성군은 그동안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홀로 청년센터가 없었다. 장성군은 지난 2022년부터 민선 8기 출범 사업으로 청년센터 추진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해왔다. 센터가 들어서는 곳은 장성읍 군민회관 인근이다.

부지면적 1690㎡, 건축면적 600㎡에 지상 2층 건물로 지을 계획이다. 청년소통공간, 예비 창업 공간, 공유 주방, 다목적 공간, 미디어 스튜디오 등을 갖춘다. 1층에는 동아리방, 미디어실 등 사무 공간을 마련하고, 2층에는 다목적홀을 만들 예정이다. 장성군은 지난해 부지를 매입하고 공유 재산 심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3월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오는 10월 착공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인구정책이나 지자체 활성화 사업의 핵심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청년센터 건립을 필두로 사람이 모여드는 ‘살고 싶은 장성’을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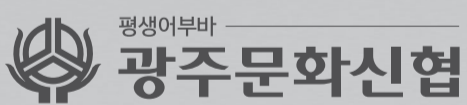
강진군 개발 토종쌀 막걸리 첫 시음 평가회서 호평

생산 늘려 영업장 등에 보급

강진군은 토종쌀인 ‘멧돼지찰벼’로 만든 막걸리 시음 평가회를 최근 열었다. 군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평가회에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나이의 공무원 69명이 참여했다. 토종쌀 막걸리 4종, 시판 막걸리 2종 등 총 6종의 막걸리를 이를 붙이지 않고 평가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맛봤다. 막걸리 핵심 원료는 토종 찹쌀 가운데 하나인

‘멧돼지 찰벼’이다. 도암면과 병영면에 있는 주조장과 박점자(강진읍 신풍마을)씨에 의뢰해 막걸리를 생산했다. 그동안 전용 제조 용기와 보온 장비 등이 부족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첫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총 득점과 선호도를 합한 종합평가 1위는 시중 제품이, 2위는 토종쌀 막걸리 알코올 6% 제품이 차지했다. 토종쌀 막걸리에 대해 평가단은 ‘약간 톡 쏘는 맛이 난다’, ‘산뜻하다’, ‘부드럽다’ 등의

평가를 했다. 강진군은 지역 식당의 한정식과 잘 어울리는 토종쌀 막걸리를 양조장에서 만들어 영업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흥미로운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진의 한식과 토종쌀 막걸리를 강진에서 맛보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